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3. 29(목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김인곤 • ☎ (044) 201-4211, 4212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3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9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대한항공-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

- 국적사 최초, 태평양 노선에서의 양사 공조로 ‘이용자 편의 증진, 인천공항 허브화 기여’ 기대 -

□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의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*에 대하여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18.3.28자로 이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. 이로써 대형항공사들로 구성된 세계 3대 항공동맹**의 승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.

* 두 개 이상 항공사가 각 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, 특정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운임·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공동수행하고, 수익·비용을 공유하는 경영 모델

** 항공동맹(alliance) :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결성한 항공사간 협력체로 3대 항공동맹(Skyteam, Star Alliance, Oneworld)이 있음

○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중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,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('17.7.18~)하고,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('17.9.8), 공청회('17.12.21)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,

○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,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휴협정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우선,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* 간 연결성(connectivity)이 강화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,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**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대한항공의 아시아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 간 연계 강화

** (例) : [제휴협정 시행] (나리타-시카고 노선) 일본항공 11:10 發, 아메리칸항공 18:20 發
[제휴협정 미시행] (인천-시애틀 노선) 대한항공 18:25 發, 델타항공 18:35 發

○ 또한,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직·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이와 같이 인천-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하여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.


□ 한편,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-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, 일부 노선*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.

* 양사 동시 운항 2개 노선 : ①인천-시애틀 ②인천-애틀란타

양사 단독 운항 3개 노선 : ①인천-라스베가스 ②인천-디트로이트 ③인천-워싱턴

○ 또한,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,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연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고,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.”고 밝혔다.

 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고성우 사무관(☎ 044-200-42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